

# 북한의 2003년도 경제정책 추진 실태

김진무 (숙명여대 국제관계대학원 교수)  
조현식 (북한문제전문가)

## I. 서론

북한은 2003년도의 경제정책 방향을 “가까운 몇 해 안에 나라의 면모를 근본적으로 일신시키고 인민들에게 행복한 생활을 마련할 것”이라고 하면서 식량증산 및 전력·석탄 등 에너지 증산과 금속공업, 경공업, 철도운수, 과학기술, 대외경제 활성화 등으로 제시하고 전년도부터 실시해오던 경제정책을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경제난 해소에 주력하였다.

특히 금년은 토지정리사업, 수리사업, 감자농사혁명, 축산장려 및 양어장 건설 등 식량 증산과 에너지난 해소는 물론 IT 등 전략 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 등 경제건설을 위해 총력을 경주하였으나 경직된 경제체제의 모순과 기반시설 미비, 원자재 부족, 대외적인 여건의 미숙으로 인한 외국 기업의 대북 투자 부진 등으로 인해 큰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전반적인 경제난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03년도 북한 경제의 정책방향과 각 산업부문별 구체적 추진실태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경제정책변화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 II. 2003년도 경제정책 방향

북한은 금년도 신년공동사설과 최고인민회의 10기 6차 회의(3월 26일)에서 재정상 문일봉의 보고 연설을 통해 “가까운 몇 해 안에 나라의 면모를 근본적으로 일신시키고 인민들에게 행복한 생활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경제발전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북한의 금년도 경제정책 추진방향은 새로운 정책 제시 없이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7.1 경제

관리개선조치」를 보완·강화하는데 역점을 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북한은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의 정착을 위해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각 공장과 기업소의 생산전문화 및 통제를 강화하는 등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부문별 정책방향으로는 먼저 ‘국방공업육성’을 최우선과제로 설정하고 국방력 강화를 경제·사회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다음으로 전력·석탄·금속공업과 철도 운수 등 주요 기간산업에서의 혁신을 통해 인민경제 활성화를 달성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경공업의 현대화를 통하여 질 좋은 인민소비품을 대대적으로 생산할 것과 농업부문에서는 종자혁명, 감자농사혁명, 두벌농사를 철저히 구현하여 농업생산을 늘이고 대규모 토지정리사업을 계속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경제건설을 위해서는 경제관리를 개선하고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선진기술을 진지하게 배우고 최첨단 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는 등 기술혁신 사업을 착실하게 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상과 같은 금년도 북한의 경제정책방향을 종합해 보면 먼저 사회주의 원칙 하에 최대실리 도모를 위해 2002년 7월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경제관리개선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표방하는 한편 전력·석탄·금속·수송 등 주요기간산업과 경공업 및 농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정보화시대에 맞는 첨단과학기술을 수용해야 한다고 하면서 IT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대외교류 협력에 나설 것임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금년에 ‘국방공업육성’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함으로써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정착 및 주민생활 향상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 Ⅲ. 부문별 정책추진 실태

#### 1. 농업/식량부문

##### 1) 토지정리사업

북한은 금년에도 당면한 식량난 해소를 위한 농업부문의 생산 증대를 위하여 대규모 토지정리사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북한은 5월 2일 노동신문정론을 통해 “토지정리사업은 김정일의 결단에 의해 시작된 나라의 부강발전을 위한 대자연 개조사업이며 만년 대계의 애국위업”이라고 주장하는 등 토지정리사업을 김정일 치적으로 선전하면서 각 도·시·군 돌격대원들을 동원하여 토지정리과업을 조기 완료토록 독려했다.

이에 따라 금년에는 평양시와 평안남도, 남포시의 토지정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02년 3월부터 공사중인 평양, 평안남도, 남포지역의 토지정리사업 2단계 공사를 금년 3월에 시작하여 4만 6,000정보 규모를 2004년 봄까지 완공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sup>1)</sup> 그리고 공사중인 평양·평남·남포지역의 토지정리작업이 완료되면 앞으로 황해북도, 개성시, 함경남도 지역에 대한 토지정리사업을 2005년까지 계속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보도되었다(12월 18일 조선신보).

이로써 1998년 10월부터 내년 봄까지 완료될 북한의 토지정리사업은 총 27만 1,500여 정보로서<sup>2)</sup> 북한 총경지 면적(2002년 199.2만 정보)의 13.6%,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1) 평양·남포·평안남도의 토지정리사업은 총 9만 정보의 토지를 정리한다는 계획 하에 2002년 3월 착수되었으며 2002년 12월 1단계 공사 4만 4,000정보를 완료하고, 지난 3월초부터 2단계 공사를 추진하였는데 공사규모는 평양시 1만3,000정보, 남포시 9,400정보, 평안남도 6만 7,600정보 등이다.

2) 북한토지정리사업 실적은 총 27만 1,500정보로서 강원도 3만 정보, 평안북도 5만 1,500정보, 황해남도 10만 정보, 평양·남포·평남 9만 정보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 지역별 토지정리사업 추진실적

지역	공사기간	토지정리면적	경지증대
강원도	'98. 10~'99. 4월	3만정보	1,760정보
평안북도	'99. 10~'00. 5월	5만1,500정보	2,000정보
황해남도	'00. 10~'02. 3월	10만정보	2,310정보
평양, 남포, 평안남도	'02. 2~'04. 봄 (전망)	9만정보	미상
계	5년 7개월	27만1,500정보	6,070정보

북한의 토지정리사업은 농산물 생산증대를 위한 기본적인 농업구조개선의 일환으로서 특히 강원도와 평안북도 지역은 대부분 산지와 구릉지대로서 토지정리의 효과가 비교적 클 것으로 보이며 곡물 증산에도 다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 2) 수로공사

북한은 영농기반 개선을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의 일환으로 1999년 11월 개천~태성호간 160km의 대규모 수로공사를 착공하여 3년만인 2002년 10월 완공하고 금년 5월초 개통식을 가짐으로써 서해 곡창지대의 10만정보 논·밭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게 되었다.<sup>3)</sup>

금년에는 평안북도의 백마~철산간 약 273km의 수로공사를 적극 추진시킬 것이라고 재정상 문일봉이 지난 3월 26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10기 6차 회의 보고연설을 통해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금년 4월 9일 발표한 당중앙위원회 구호를 통해 “전국이 달라붙어 백마~철산간 물길공사를 적극 다그치자”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4월 말경 동 수로공사를 착공하였다. 동 수로공사가 완공되면 평안북도의 4만 6,000여 정보 농경지에 대한 관개용수 공급을 통해 10여만톤의 농업증산과 3만여kwh의 전력절감을 목

3) 북한은 개천-태성호 물길공사를 통해 10만여 정보 농경지에 관개용수를 공급함으로써 약 30만톤의 농업증산(FAO는 20만톤 이상의 증산 추정)과 6만여 kwh의 전력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3) 감자 농사

북한은 만성적인 식량난 해결의 차원에서 1999년부터 감자농사혁명에 주력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감자 재배면적의 확대,<sup>4)</sup> 다수확 품종 육종과 보관 및 가공기술 등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금년 3월 5일에는 감자증산을 위한 농근맹 일꾼회의를 개최하고 “김정일이 제시한 감자농사혁명 방침(1998년 10월)을 관철하기 위해 각군별, 농장별, 작업반들은 사회주의 경쟁을 힘있게 벌여 부강조국 건설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5월에는 내각의 성과 중앙기관들을 총동원하여 감자 주산지인 양강도 백암군에 대한 지원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는데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5월 5일)은 내각 성·중앙기관들이 올해 들어서만 60여종에 5,000여점의 트랙터 부속품과 40여종 4만여점의 각종 영농자재를 수집하여 백암군내 감자농장에 전달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또한 평양방송(6월 11일)은 북부 산간지대의 감자산지인 양강도 삼지연군 포대지구에 250여정보의 감자밭을 새로 조성한 것으로 보도하였는데 북한은 삼지연군 포대지구를 감자 주산지인 대흥단군<sup>5)</sup>과 함께 고산지대 본보기 감자농장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00년 9월부터 매년 수 백명의 제대군인을 집단으로 배치하여 이들에게 주택을 건설해주며 감자밭 개간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4) 북한의 감자재배면적은 1998년 11.1만정보에서 2002년 19.4만정보로 증가되었으며 감자생산량도 1998년 16만톤에서 2002년 45만톤으로 대폭 증가되었다.(2002년 12월 27일 농촌진흥청 발표)

5) 양강도 대흥단군은 1952년 7월 김일성 지시에 의거 화전을 개간, 북한 최대규모의 국영종합농장이 설립된 지역으로 경지면적은 1만여정보(3,000만평)이며 대부분 해발800m이상 고원지구로서 주로 감자, 밀, 보리, 콩, 조, 귀리, 채소 등 작물과 젓소, 돼지, 양 등을 사육하는 목장으로 되어 있다. 김정일은 1998년 10월 대흥단군 종합농장을 현지지도하고 감자농사를 획기적으로 전환할 것을 지시한 후 매년 동 지역을 시찰해 왔으며 1999년 3월이래 수차에 걸쳐 제대군인 2,200여명을 투입, 종합적인 감자생산 및 가공공장으로 발전시켰다.

한편 금년 들어 북한은 감자농사의 확대를 위해 양강도 삼지연군 포태지구에 감자조직 배양공장을 새로 건설하는 등 지난 2000년 말부터 농업과학원의 지원을 받아 양강도의 대홍단군, 백암군, 삼지연 등에 무(無) 바이러스 씨감자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감자조직 배양공장을 잇달아 건설하였다

#### 4) 축산 장려/양어장 건설

북한은 식량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써 대체식량을 2000년 이후 적극 개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년에도 전국의 농촌과 공장·기업소에 축산을 장려하고 양어장 건설을 촉구하였는데, 염소, 토끼, 닭, 오리, 돼지 등 가축 사육과 열대메기, 송어, 잉어 등 주로 민물고기를 중심한 양어사업을 전국적인 운동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김정일은 황해북도 봉산군 염소종축장(1만여정보)을 현지지도(6월 13일)한데 이어 황남 선원군 계남목장(5,000여정보)을 현지지도(6월 17일)하는 등 염소목장에 대한 현지지도를 강화하면서 지역의 특색에 맞는 염소종자를 연구 개발한 것과 선진기술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북한은 금년 초 강원도 법동군과 개성시 장풍군에 1만여 마리를 수용할 수 있는 염소목장을 건설한 것을 비롯하여 5월에는 평양시 교외 강동군 일대에 7,800여 정보의 초지 조성<sup>6)</sup>과 166개의 염소우리, 50여개의 이동 방목우리 등 염소전문협동농장을 건설하였다. 또한 평안북도는 금년 들어 도 차원에서 각시·군을 대상으로 염소 사육에 적극 나서도록 독려하였는데, 그 결과 금년 4월 말 현재 도내 염소 수는 5배로 늘었고 초지는 5만 5,600여 정보가 조성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5월 28일 노동신문). 따라서 북한은 6월 2일 노동신문을 통해 지난 7년간 각지에 100여개의 염소목장을 건설하고 염소사육도 3.8배로 늘었다고 실적을 선전하였다

북한이 이와 같이 염소사육에 주력하는 이유는 염소가 다른 초식동물에 비해 생활력이 강하고 번식률이 높으며 관리와 사료확보에 품이 적게 드는데다 산지를 이용한 대단위 목축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된다<sup>6)</sup>

6) 북한의 염소사육 붐은 1999년 5월 김정일 지시에 의거 본격화되기 시작하여 각 협동농장은 작업반 1개당 50~200마리, 탁아소·유치원 1개소 당 10마리,

북한은 염소목장 이외에도 종합목장 건설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7월에는 강원도 법동군 영저리 지구에 조성중인 종합목장 건설이 완공 단계에 있다고 보도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이 목장은 5만여평방미터(약 15,000평)의 부지에 총 연장 길이 8km의 축사와 2만여정보(6,000만평)의 초지, 30여정보(9만평)의 먹이기지로 이루어진 대규모로서 150여 동에 달하는 염소와 돼지, 젓소, 오리, 토끼 축사와 젓가공 시설, 주택, 학교, 편의봉사시설들을 포함하고 있다(노동신문 7월 18일). 또한 9월에는 100여만평방미터(약30여만평)의 부지에 세운 두산 오리공장을 완공하였다.

최근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이 공개한 보고에 의하면(연합뉴스 2003년 11월 11일) 금년도 북한에서 사육되는 가축 가운데 토끼와 닭이 매년 증가되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돼지와 소는 사료 부족현상으로 인해 정체상태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2003년도 현재 북한 가축현황

(단위 : 천마리)

구 분	1999년	2003년	증가율
소	577	576	-0.2%
돼 지	2,970	3,178	7%
양	185	171	-8%
염 소	1,900	2,717	43%
토 끼	5,202	19,576	276%
닭	10,371	18,711	80%
오 리	1,624	4,616	184%
거 위	829	1,247	50%

양어장 건설 추진실태를 보면 북한은 1997년 6월 김정일이 부족한 식량 및 부식을 대체식량으로 활용하기 위해 양어사업을 집중 발전시키라는 지시

농장원 1가구당 1~2마리의 염소를 의무적으로 기르도록 할당하고 있다(연합뉴스 2002년 6월 4일) 2001년도 염소목장건설은 약 30개 정도이며 5~6만정보의 초지를 추가 조성한 것으로 추정된다(주간동향 2002년 8월 15일, 통일부 자료)

에 따라 금년에도 열대메기, 송어, 잉어 등 주로 민물고기를 중심으로 한 양어사업을 수산분야 역점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먹이 량이 적은데다 빨리 자라고 기르기도 쉬워 생산성이 매우 높은 열대메기 양식에 주력하고 있는데 평양과 평안남도, 황해남도, 함경북도, 자강도 등 북한전역에 메기양어장과 메기공장(양어장과 가공시설)을 대대적으로 건설하였다

따라서 지난 10월 평안북도 운산군에 건설된 1만여 평방미터(3,030평) 규모의 메기공장(메기양어장)은 부화실, 사료가공실 등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온천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철 메기를 기를 수 있다고 선전하였다. 또한 북한은 모든 시와 군에 20~30정보(9만평) 규모의 양어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평양시와 황해남도 삼천군, 자강도 동신군 등 여러 지역에서 건설된 메기공장에서 수 백톤의 물고기가 생산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11월 26일 조선중앙통신).

한편 북한은 양어전문가 5명을 국제구호 단체인 “머시코”의 지원으로 7월 24일~8월 2일간 미국에 파견하여 오리건주와 워싱턴주, 아이다호주의 양식시설을 견학하게 하였으며, 미국 양어대표단 4명이 11월 1일~8일간 북한을 방문, 북한 양식업 실태를 파악하고 기술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현재까지 북한의 양어장 건설 현황 및 생산량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나 일부 선전보도내용과 관련 동향을 종합해볼 때 약 4,500여개소에서 연간 10여만톤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김정일의 관심사업으로서 식량난 해결차원에서 향후 계속 확대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sup>7)</sup>

## 5) 2003년도 식량수급 현황

금년도 북한의 식량수급실태를 분석해 볼 때 총수요량은 정상배급 기준

7) 이처럼 메기양어 붐이 조성되면서 메기요리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식당들이 등장, 인기를 끌고 있는 바 평양 메기탕집은 하루에 1,500여 그릇을 판매하고 있고 새날메기탕집 등 평양시에서는 하루 1톤의 메기를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선전하고 있으며 현재 건설중인 메기공장들이 완공되면 메기 생산량이 1.6배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700g/1일)으로는 632만톤인데 비해 전년도 생산량은 413만톤으로서 219만톤이 부족, 자급도는 65%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통상적인 평균 22% 감량 배급 기준(546g/1일)으로는 총수요량이 541만톤으로서 전년도 생산량 413만톤은 76%의 자급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10월 말까지 도입량 115만톤을 고려할 때 부족량은 13만톤으로서 충족율은 98%에 달하며, 국제사회로부터 지속적인 식량지원 획득을 위한 대외경제 협력 활동을 감안할 때 금년도 추가 도입량을 포함하면 금년도 식량난은 극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03년도 식량수급 전망

(단위: 만톤)

구 분	총수요량	'02년생산량	부족량	자급도	도입량	절대부족량	충족율
정상 배급시	632	413	219	65%	115	104	84%
22%감량배급시	541	413	128	76%	115	13	98%

\* 식량수급 연도기준은 매년 11월1일부터 익년10월31일까지임

## 2. 에너지 부문 추진 실태

### 1) 발전소 건설 및 설비 현대화

북한은 금년에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난 극복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전력부문에 대한 투자를 전년 대비 12.8% 증가하여 에너지난 타개에 주력하였다.<sup>8)</sup> 특히 최흥규 국가계획위원회 국장은 조선신보와의 인터뷰(4월 1일)를 통해 북한이 금년부터 “연료·동력문제 해결을 위한 3개년 계획”을 수립·추진하기로 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는 2005년까지 에너지난을 해소하고 2006년부터 본격적인 기술도입 및 산업구조 개선을 위한 “장기경제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8) 북한은 2003년 3월 26일 개최된 최고 인민회의 10기 6차회의시 재정상 문일봉은 2003년 예산안 보고를 통해 전력, 석탄 등 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를 전년대비 각각 12.8%와 30% 증가된 규모를 책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따라서 금년에는 공사중인 대규모 수력발전소를 비롯하여 중·소형 발전소 건설과 발전설비의 정비보수 및 현대화에 총력을 경주하였다. 즉 북한은 북한강 상류에 건설중인 금강산댐(일명 임남댐)이 완공단계에 있으며, 지난 1999년 4월 착공한 황해북도의 예성강 발전소(발전능력 10만kw규모) 건설 공사에 군인들을 투입하여 금년 내에 조기 완공을 서두르고 있다. 한편 2002년 11월 착공한 임진강 상류 계단식 중형급 발전소인 원산청년발전소 1-4호 건설에 김정일이 금년 3월과 4월 2회에 걸쳐 중기계, 화물자동차 등 건설 기·자재를 전달하고 조기완공을 적극 독려하였다. 지난 4월에는 1988년에 착공되어 1990년대에 지속된 경제난으로 공사 진척이 극히 부진했던 함북 어랑천 발전소 건설공사가 재개되었다. 또한 4월 현재 함남 금야군의 금야강 발전소(발전능력 13.5만kw)를 비롯하여 자강도에 건설중인 외중발전소가 완공단계에 있고, 대동강 지류인 남강에 승호철도발전소, 자강도 강계시에 건설중인 의진발전소가 6월 현재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핵문제 관련 2002년 12월부터 KEDO의 대북 중유 공급 중단 이후<sup>9)</sup> 화력발전소들의 설비를 개·보수하고 수출용 석탄을 내수로 전환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따라서 북한 최대 규모의 북창화력발전소에 대한 설비 보수작업을 비롯하여 화력발전소에 대한 대규모 보수공사 및 기술개발을 통해 전력증산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 3월 현재 북창화력은 전년동기간 대비 전력생산이 13% 증가하였고 평양화력은 36%나 증산한 것으로 보도하였다(3월 24일 중앙방송).

한편 북한은 중·소형발전소 건설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2003~2005년 기간 중 “연료·동력문제 해결을 위한 3개년 계획”에 의거 에너지수급사정 악화를 타개하기 위한 대규모 중·소형 발전소 건설에 주력할 것으로 판단된다.

금년도는 추가로 건설하기보다는 대부분 2002년도에 공사 중이던 중·소형발전소건설에 주력하였는데, 금년 들어 현재까지 완공된 중·소형 발전소는 신성천 철도 청년발전소(3월 30일 완공), 라선발전소(4월 12일 완공),

9) KEDO는 북한에 대해 1995년 이후 매년 화력발전소용 중유 50만톤을 공급해 왔으나 북핵문제와 관련 2002년도에는 41.1만톤을 제공하고 2002년 12월부터는 중유제공을 중단하고 있다.

평원 1·2·3호발전소(11월 1일 완공)등 30여개로 보이며 여타발전소는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자강도의 추가 13개를 비롯한 평북지역 14개 건설을 포함하여 모두 100여개 정도가 더 건설 될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1996년 이후 각지에 중·소형 발전소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 100kw 이하의 매우 규모가 작은 소형으로서 안정적인 전력생산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즉 현재 북한의 중·소형발전소는 약 7,780여개에 설비용량 32만kW로 추정되고 있으나 북한의 총 발전용량 777만kW의 4% 수준에 불과하며, 특히 산간지역의 소규모 하천을 대부분 이용하고 있어 동계의 결빙기와 봄·가을철 갈수기 그리고 빈번한 고장 등으로 인해 발전효율이 매우 저조하여 만성적인 전력난 해소 효과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주로 인근지역 가정용 조명이나 난방 등에 전력 공급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2000년부터는 발전소 건설 숫자보다 비교적 규모가 큰 발전소 건설을 추진함으로써 전력생산 확대를 위한 내실 위주의 건설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전력 공급실태를 보면 2002년 말 현재 총 전력 수요량은 359억 kwh이며 발전량은 190.4억kwh로서 168.6억kwh가 부족, 충족률은 53% 수준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전력부족 현상이 극심하여 각지의 산업공장들 의가동율이 28% 수준에 불과하고, 철도, 평양 지하철 운행, 공공건물과 일반가정 조명용, 난방용 등 전기조차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절전을 독려하고 있어 경제난과 주민생활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연도별 발전량

연도	90	92	94	96	98	00	02
발전량(억kwh)	277	247	231	213	170	194	190
충족율(%)	77	69	64	59	47	54	53

\* 연간 총수요량은 359억kwh 추정

## 2) 탄광시설 현대화 및 장비·자재 공급

북한에서 총에너지 소비구조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석탄 생산부진이 에너지난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즉 신규 탄광개발 부진, 채굴의 심부화, 장비노후화, 자재 공급 부족 등으로 인해 1990년대 들어 매년 석탄생산량이 감소되어 1990년 3,315만톤이던 것이 1998년도에는 1,860만톤까지 점차 감소되었다가 2002년도에는 2,190만톤으로 다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연간 총소요량 5,200만톤의 42%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연도별 석탄 생산량

연도	90	92	94	96	98	00	02
생산량(만톤)	3,315	2,900	2,540	2,100	1,860	2,250	2,190
증축율(%)	64	56	49	40	36	43	42

\* 연간 총소요량은 5,200만톤 추정

따라서 북한은 석탄증산을 위해 금년 초부터 석탄공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기술혁신운동과 설비가동률을 높여 북창탄광을 비롯한 덕천 개천, 강동, 천내, 온성지구 탄광들에서 석탄 생산량을 증가시켰다고 보도하였다(1월 17일 노동신문). 특히 북한은 노동신문 보도(4월 17일)를 통해 금년 1/4 분기에는 각지의 탄광들에서 새로운 채탄방법과 합리적인 굴진방법들을 적극 도입해 전년 동기보다 40만톤의 석탄을 더 생산하는 실적을 올렸다고 선전하였다.

한편 각지의 공장·기업소와 협동농장에서는 연료 부족 문제를 자체 해결하기 위해 중소탄광을 개발·운영하고 있는데, 평안남도 개천시 용운리와 운곡지구 등에서는 매년 수십만톤의 석탄을 생산할 수 있는 중소탄광을 개발하여 주민들의 땀감문제에 상당한 몫을 자체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3월19일 중앙방송). 또한 순천, 개천, 강동지구 중소탄광관리소 산하에 각각 40여개의 중소탄광들이 짧은 기간에 완공·조업하였으며, 평양, 강서, 북창지구 중소탄광관리소 산하 등에서도 각각 10~20여개의

중소탄광들을 더 건설하는 등 금년 들어 지난 7월말까지 전 지역에서 230여개의 중소형 탄광을 개발했다고 보도하였다(8월 10일 중앙방송).

북한이 이처럼 예년에 비해 많은 중소탄광을 개발하고 있는 것은 핵문제 등으로 원유 등 여타 에너지원의 도입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석탄을 자력갱생방식으로 생산 증대가 가능한 유일한 에너지원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며, 특히 작년 12월 KEDO 중유공급 중단으로 심화된 전력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형탄광에서 생산된 석탄이 화력발전소 가동에 우선적으로 공급됨에 따라 각지의 지방단위 및 사업 단위들 사이에 더욱 부족해진 석탄공급을 자체적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중소탄광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외에도 북한에서 최근 석탄 생산이 증가한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작년 7월 1일부터 ‘경제관리개선조치’에 의거 탄부들의 임금인상률이 종전에 비해 23~29배나 올라서 일반 노동자의 인상률(18~21배)보다 훨씬 높게 책정되었으며, 또한 대형탄광들이 과거 “천삽 뜨기 운동”<sup>10)</sup>과 같은 낡은 노동방식을 벗어나 새로운 성과급제 도입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안주지구 탄광연합기업소의 경우 금년 들어 매달 계획의 150% 이상을 수행하는 등 석탄생산이 예년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보도되었다(6월 13일).

둘째, 노동신문 보도(3월 20일)에 의하면 북한 탄광은 그동안 갱의 지형이나 채굴기술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1일 채탄 목표와 굴진 거리를 정해 무조건 이를 관철하는 방식을 적용해 왔으나, 금년부터 실시하는 새로운 방식은 탄광의 지형적인 조건에 맞게 탄부들의 노동정량을 바로 정해주고 생산량을 정확히 평가함으로써 생산열의를 높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셋째, 북한은 1995년부터 KEDO가 제공한 연간 50만톤의 중유를 선봉 화력발전소를 비롯한 7개 화력발전소의 연료 및 착화용으로 사용해 왔으나,<sup>11)</sup> 2002년 12월 KEDO의 중유공급 중단 조치로 발전소 가동률이 저

10) “천삽 뜨기 운동”은 북한의 사회주의 노동경쟁운동으로서 농촌에서 객토작업 관개공사 등 흙을 파는 작업장 또는 공사장에서 널리 강요되고 있는 노동운동이며 공사에 동원된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천삽을 뜨고 나서야 허리를 펴고 잠시 쉴 수 있게 하는 운동이다. “천삽뜨고 허리펴기 운동”이라고도 한다.

11) KEDO의 대북한 중유제공실적은 1995년 15만톤, 1996~2001년간 매년 50만톤씩, 2002년 41.1만톤 등 총계 356.1만톤(총비용 5억 1,100만불)인

하되면서 발전량이 상당부분 감소하게 되자<sup>2)</sup> 금년 초부터 석탄증산을 독려하는 동시에 기술혁신운동을 전개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3) 원유탐사 및 개발

북한은 유류 소요량 전량을 외국으로부터의 수입 및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데 1992년 이후 구소련의 원유지원 중단과 이란으로부터 원유 도입 중단 등으로 점차 유류 도입량이 감소되어 1990년도에 원유 252만톤 이었던 것이 2002년도에는 중국으로부터 원유 59.7만톤과 KEDO지원 중유 41.1만톤, 그리고 중국 등으로부터 소량의 정제유를 도입하는 등 총 유류도입량은 정제유로 환산하면 약 120여만톤으로서 연간 총 소요량 약 330여만톤으로 추정할 때 210여만톤이 부족하여 충족율은 약 37%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일반자동차, 버스 등은 대부분지역에서 일요일 운행이 중단되고 화물선 운항 및 어선 출어와 트랙터를 비롯한 농기계 운용제한 등으로 인해 경제난과 주민 생활난이 더욱 가중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연도별 원유 도입량

연도	90	92	94	96	98	00	02
도입량(만톤)	252	152	91	93.6	50.4	38.9	59.7
충족율(%)	72	43	26	27	14	11	17

\* 연간 총수요량은 350만톤 추정

이러한 석유 부족이 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년 들어 북한은 유전탐사에 계속 노력을 기울였는데, 지난 2월 언론보도에 의하면 북한은 함경북도 종성 노동자구의 지하 1,500m지점과 함경남도 상농노동자구의 지하 1,900m지점을 직경 4인치굴착기로 시추해 유정을 발견했다고 밝혔다(2월 14일 중앙일보). 특히 상농노동자구 일대에서 시추한 원유

것으로 파악되었다.

12) 북한의 2002년도 발전량은 190.4억kwh로 2001년의 201.5억kwh에 비해 5.5% 감소하였다.

는 외국전문가들의 검증을 통해 품질이 좋은 “수퍼 라이트 크루드 오일”<sup>13)</sup>로 판명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이 일대의 유전개발권을 캐나다 “사버린 벤츠스사”와 계약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캐나다 “사버린 벤츠스사”와 지분참여 계약을 체결한 싱가포르의 “사버린 벤츠스사”가 2002년 8월 원유 5,000만 배럴, 천연가스 300억<sup>m<sup>3</sup></sup>생산을 기대한다고 밝힌 지역이다.

그러나 북한은 1965년부터 원유탐사를 시작한 이래 1990년대 외자유치를 통해 본격적으로 원유개발에 주력하여 수 개 지역에서 유정은 발견됐으나, 현재까지 경제성이 없었던 점을 감안할 때 성과가 의문시되며, 또한 북한이 채굴장비와 자본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원유채굴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어 효과적인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sup>14)</sup>

한편 금년 2월 13일 조총련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국내외 보도에 의하면 북한은 작년 초 원유탐사 및 시추업무를 주관해 오던 내각의 원유공업총국을 당 군수공업부(부장 전병호)로 이관하였는데, 이는 동 사업을 당 차원에서 직접 관장함으로써 북핵 문제와 관련 현대적 시추설비와 기술반입이 어려운 현실과 KEDO의 중유공급 중단 등에 대비하여 대대적인 군 인력을 투입하여 원유를 생산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로 보인다.

### 3. 금속공업부문 추진실태

#### 1) 광물탐사 및 광산개발

북한은 신규광산개발의 부진과 광산장비 부족 및 노후화로 인해 1990년

13) “수퍼 라이트 크루드 오일”(Super Light Crude Oil)은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지의 천연가스층에서 가스와 함께 발견되는 물처럼 투명한 고품질 원유로 북한에서 발견되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4) 한국 석유공사는 북한이 탐사중인 지역 중 유전발견이 가장 유력한 곳은 18개 공을 시추해 1985년에 1개 공에서 하루 450배럴의 원유가 산출된 바 있는 서한만 분지를 꼽았으며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 원유의 시험생산이 있었지만 아직 경제성 있는 규모의 유전발견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평가한 바 있다.

대 들어 매년 철광석 생산량이 감소되어 1990년 843만톤 이던 것이 1998년도에는 289만톤까지 점차 감소되었다가 2002년도에는 407만 8천톤으로 다소 증가되었으나 이는 2001년 420만 8천톤과 대비시는 3.1% 감소한 것이 된다.

연도별 철광석 생산량

연도	90	92	94	96	98	00	02
생산량(만톤)	843	575	459	344	289	379	408

따라서 북한은 광물증산을 위해 금년 초부터 지하자원 탐사를 강화하여 새로운 광물자원을 많이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내각 채취공업성의 강병기 국장은 지난 4월 한 인터뷰에서 “각도의 탐사 관리국에서 지질 및 물리탐사를 현대화, 과학화하여 품위있는 광물질들을 찾아내는데 커다란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4월 22일 연합). 또한 금년 5월에는 북한최대의 비철금속 산지인 함경남도 단천시에 위치한 검덕광산에서는 분(分)광산을 개발 조업하였으며 수십만톤의 광석을 확보하고 7개 채굴장을 마련하였다고 보도하였다(5월 1일 중앙방송).

한편 채취공업성 산하 각 지역 광산에서 증산운동이 벌어지고 있으며 “12월5일 청년광산”, “혜산청년광산”, “11월8일 광산”을 비롯한 여러 광산에서 증산운동이 활발하게 추진되어 지난 5월에는 전년대비 광물생산을 2배 가까이 증가시켰다고 보도하였다(5월 20일 평양방송). 북한 최대의 제철소인 김책제철연합기업소<sup>15)</sup>는 작년 1월부터 시작한 해탄로<sup>16)</sup> 보수공사를 금년 6월말 완공함으로써 코크스 생산이 원활하게 되었으며 7월에는 소결로<sup>17)</sup>

15) 김책제철연합기업소는 함북 청진시에 소재하며 인근 무산광산의 철광석을 원료로 북한 철강생산의 약 40%를 담당하는 최대 규모의 종합제철소로서 종업원 5만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특급기업소이며 연간 선철 210만톤, 강철 240만톤, 압연강재 150만톤 등 총 600만톤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16) “해탄로”란 석탄을 높은 온도에서 건류하여 제철의 필수원료인 코크스(역청탄)를 만드는 장치로서 북한의 경우 외화난으로 코크스 필요량의 상당부분을 대체해 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17) “소결로”란 쇠를 가공해 덩어리인 소결광으로 만들기 위한 장치로서 소결광은

정비보수를 완료하여 소결광 생산능력이 1.3배 증대되었다고 보도하였다(7월 17일 중앙방송). 이로써 김책제철소는 금년 들어 노후설비의 보수·개조작업을 모두 완료하고 생산 정상화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평가된다.

## 2) 파철 수집

북한은 철광생산<sup>18)</sup> 부진을 보완하기 위한 일환으로 금년 초부터 파철수집사업을 전국적인 운동으로 전개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목적은 생활주변에 방치된 고철 등을 수집하거나 공장·기업소 등에서 낡고 못쓰게 된 유희설비 등을 폐기 처분해 원료로 재활용토록 제철소와 제강소에 보내 주려는 것이다.

파철수집운동은 내각의 성과 당·정 기관은 물론 공장·기업소, 학교별, 지역별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1월 평양시를 비롯한 황해북도, 함경북도 등 각 시·도에서는 새해 들어 한 달여만에 수 100톤씩의 파철을 수집하여 제철·제강소에 보내주었는데, 평양시의 경우 만경대, 대동강, 보통강구역과 동·인민반 주민들이 800여톤의 파철을 수집해 천리마 제강연합기업소의 강철생산을 지원하였으며, 황해북도에서는 800여톤의 파철을 수집 황해제철소에 보내주었고, 또한 함경북도에서는 3,600여톤의 파철을 수집하여 철강재 증산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도 한 바 있다(1월 22일 노동신문).

조선중앙TV 보도(3월 19)에 의하면 내각의 성·중앙기관들이 매달 “집중 수집의 날”과 “집중 수송의 날”을 설정하여 파철 수집사업에 앞장섬으로써 강철전선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성 일꾼들은 아래 단위들에 내려가 파철 예비를 적극 찾아내도록 조직사업을 하고 있다고 선전하였다.

북한의 이와 같은 동향은 노후화된 기존 설비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설비개선과 파철 수집을 통해 광물 생산 부진 등 침체된 제철·제강생산을 다소나마 증가시켜 보려는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되나 설비노후화 전력난

---

다시 선철을 만드는데 주원료가 된다.

18) 2002년도 북한의 생산실적 : 철광석 407.8만톤, 강철 103.8만톤, 비철금속 8.7만톤

심화, 원자재, 원료도입 부진 등으로 인해 생산 침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4. 경공업 부문

##### 1) 식품·생활품 생산

북한은 그동안 가장 소홀하여 낙후되었던 경공업 부문을 주민 생활 향상을 위해 생산공장 확장 및 개·보수 추진으로 생활품 증산에 주력하고 있다고 선전하여 왔다.

김정일은 지난 4월과 8월 함남지역의 일용품공장, 벽돌공장, 고무제품공장 및 평양 화장품공장, 편직공장 등 주민 생활품 생산 공장을 잇따라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주민생활 향상을 위한 생산 활동을 독려하는 등 지도자로서 주민생활 향상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하였다.

먼저 북한은 식량난 해소를 위한 식품 증산의 일환으로 닭 메기, 감자, 타조 등의 관련 시설에 대해 개·보수 및 준공 작업에 심혈을 기울였는데, 금년 2월 용성 닭 공장을 현대식으로 개·보수하였고, 평양시내 닭 공장에 공급될 배합사료의 제조 공장도 완공되었으며, 동평양 화력발전소의 폐수를 이용한 평양 메기공장이 1월 6일 준공되었다.

한편 금년 3월 23~24일에는 평양에서 홍성남 총리를 비롯한 당·정·공장·기업소 간부들이 참가하여 전국 경공업부문 일꾼회의를 개최하고, 경공업공장 현대화와 지방 산업공장의 자체적 원료 확보, 생산품 확대를 강조하였으며, 1차 소비품 생산과 기초식품 생산을 늘리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며 지방 산업공장들에서 자체 원료생산기지를 튼튼히 하고 연료자재 동원사업을 통해 소비품 생산을 늘려야 한다고 하였다.

금년 들어 건설한 주요 경공업부문과 일용품생산 공장을 보면 청진 기초식품 공장, 청진 화장품 공장 등 30여개 공장들이 현대화를 추진하였으며, 평양 사이다공장도<sup>19)</sup> 금년 5월 생산 공정을 현대화하였고, 황해남도 청단 기초식품공장을 건설하였다. 또한 9월에는 평양에 최신설비를 갖춘 껌 공장

을 건설하였고, 신의주 화장품공장에서 연간 수백만개의 화장품용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건설하는 등 금년 들어 지난 5월 말까지만 해도 각종 경공업공장 건설, 현대화·증설 건수가 76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또한 북한은 금년 경공업분야에서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합작을 적극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북한의 경공업성 부상 민일홍은 조총련 발행 잡지 ‘조선 3월호와의 회견을 통해 “경공업성에서는 올해 동아시아 및 유럽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합영·합작을 대대적으로 할 것을 계획하고 그 실현을 위한 준비사업을 착실하게 짜고 들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7월 8일에는 러시아 극동지역의 연해주와 경공업 부문의 협력관계를 확대하는 내용의 의정서를 체결함으로써 양자간 교역 확대와 합작·합영생산 등 경공업부문의 협력사업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최근 북한의 경공업부문 건설·혁신의 특징을 보면 첫째, 군인 건설자들을 동원하고 인민생활공채 수입금을 활용하여 단기간에 공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둘째, 비누·된장 등 1차 소비품(생필품)의 생산뿐 아니라 껌·약수·화장품 등의 생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셋째, 생산량 증대와 함께 품질제고를 위하여 공장간 경쟁 및 외국과의 합영·합작을 장려하고 있으며, 넷째, ‘번 수입에 의한 평가’ 등 성과급제를 도입하여 원자재 공급과 제품에 대한 구매자들의 반응을 강조하고 있는 점 등이다. 북한은 작년 ‘7.1경제조치’ 이후 기업평가방법을 생산량 지표에서 ‘번 수입’지표로 변경하여 독립채산제 기업의 물질적 자극을 통한 실리위주의 경제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경공업 부문의 공장·기업소에서는 자체적으로 품질제고와 합영·합작을 통한 자금조달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년 들어 농민시장에서의 공산품거래를 허용하고 종합시장을 건설·분양하는 등 시장 경제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을 품질 제고를 위한 기준으로 삼고 있어 주목된다. 이렇게

19) 평양사이다공장은 1982년 4월 김일성의 70회 생일을 기념하여 조총련 도교상공회 고문인 박경련이 1억5천만엔 상당의 사이다 제조설비를 지원, 평양시 동대원 구역 문수봉 기슭에 설립한 것으로 시간당 5천병의 사이다를 생산하고 있다.

볼 때 최근 북한이 경공업부문의 공장건설 및 생산 혁신에 주력하고 있는 것은 생산량 증대, 품질향상, 품목 다양화를 통하여 최근 높아진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대외적으로는 수출상품을 개발하는 데까지 목표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2) 제염소 건설 및 소금 증산

북한의 염전은 1990년 초까지는 서해안지역의 평안남도 귀성, 남양, 금성, 은하와 평안북도 남시, 황해남도 연백 등 8개 제염도를 중심으로 천일염만 생산해 왔으나, 1991년 이후 정제소금공장 건설로 공업적 방법에 의한 소금생산을 병행하여 현재 총 19개소(서해 16, 동해 3)의 제염소에서 연간 소금 70여만톤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의 소금 수급현황을 보면 연간 총 수요량은 약 140만톤 인데 비해 생산량은 70여만톤으로서 70만톤가량이 부족하여 충족율은 50%수준에 머물러 소금 부족난이 심각한 것으로 평가된다<sup>20)</sup>

따라서 북한은 식량 다음으로 부족한 소금증산을 위해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동·서해 연안지역의 제염소 건설 및 확장에 주력하였는데, 먼저 북한은 지난 1월부터 평안남도 숙천군에 있는 남양제염소 정제소금공장<sup>21)</sup>의 생산능력을 확대하기 위한 제방공사와 저수지 확장공사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종전보다 15배의 바닷물을 더 저장하여 소금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게 되었

20) 북한의 소금 수요는 대부분 군수공장, 기업소 등 공업용에 공급되고 있으며 일반주민의 식용소금공급은 극히 소량으로서 부족한 실정인 바 귀순자 증언에 의하면 소금 배급량은 거주지역 식료상점을 통해 1년에 가구당 1~2회에 걸쳐 몇 kg씩 배급을 실시하고 있으나 배급량 부족으로 각 지역의 장마당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품목이 식량과 소금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것을 보아도 소금실태를 짐작할 수가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2002년도에 소금 총공급량은 약300만톤으로서 그중 생산량 33.9만톤, 수입량 250.5만톤, 전년이 월량 15.6만톤이며 총소비량도 300만톤으로서 충족율은 100%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국의 2002년도 소금생산량 33.9만톤중 천일염 20.5만톤, 기계염 13.4만톤이며 소금소비량 300만톤중 식용 48.2만톤(16%), 공업용 251.8만톤(84%)이다(산자부 확인자료)

21) 남양제염소 정제소금공장은 이온교환막을 통해 농축된 바닷물을 진공식 증발법으로 제조하고 있는 염전으로서 1999년에 건설되었다.

다고 보도하였다(1월 29일 중앙TV). 그리고 5월에는 강원도 원산의 동해안 지역에 300여정보의 소금밭 건설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었으며, 10월에는 작년 8월 1일 완공된 함경북도 어대진지구에 있는 8월1일 청년제염소에서 증발지 물갈이와 바닷물 누수 차단 등 보수관리로 종전에 비해 두배이상의 소금을 증산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10월 6일 중앙방송).

이와 같이 북한은 금년 들어 소금밭 보수작업과 날씨 조건 및 소금밭 특성에 맞는 생산방법을 개발하고 예년에 비해 평균 한 달 정도 앞당겨 헛소금을 생산한 것으로 보도된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의 동해안 지역 염전에서는 소금생산량이 증가된 것으로 보인다.

## 5. 철도운수 부문 추진실태

### 1) 철도 신설 및 보강 사업

북한은 화물수송의 90%, 여객수송의 60% 등 평균 86%의 수송 분담율을 차지하고 있는 철도 수송능력 확대를 위해 금년 초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철도운수부문의 혁신적 추진을 중점과업으로 제시하고 철도시설은 물론 노후 철도의 레일 및 침목 교체, 자갈보충 등 철도의 보수·보강 작업을 실시하였다.

북한은 4월 1~2일간 평양에서 당·정·군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철도일꾼대회를 개최하고 철도를 세계적 수준의 현대적인 철도로 발전시키기 위해 수송조직·지휘의 컴퓨터화, 철도의 고속화·중량화, 전력공급의 강화, 첨단과학기술 도입 등의 과업 수행을 촉구하였다. 따라서 개성시 등 각 행정기관, 공장·기업소 등에서는 노후한 철도의 보수·정비를 위한 침목, 자갈, 나사, 레일못 등 각종 자재를 생산 지원하는 철도 수송능력 향상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의 철도는 험준한 지형적 여건으로 철도 견인력을 높이기 위해 철도 전기화를 역점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시설 노후화 전력공급 불안정, 잦은 고장, 험준한 지형 등으로 인해 철도 운행율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인 것으로 평가된다.<sup>22)</sup> 따라서 북한은 최근 본격화되고 있는 한반도 중

단철도(TKR)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연결사업에 대비하여 낙후되어 있는 북한의 철도수송 기반시설의 보수·정비를 위해 각급 철도기관, 공장·기업소들의 생산·기술혁신을 촉구하려는데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의 연결공사는 지난 6월 14일 군사분계선(MDL)연결지점인 경의선의 장단역과 동해선의 온정리 남방 18.5km 지점에서 남북한 공동으로 연결행사를 개최하였다. 공사진척은 경의선은 남측구간인 문산~장단역간(12km)은 이미 완료되었으나 북측 구간인 개성~장단역(15.3km)간은 아축이 제공하고 있는 자재·장비를 사용하여 공사중에 있으며, 동해선은 남측구간인 저진역~군사분계선간(7km)은 노반공사 및 철도부설공사를 활발히 실시하고 있고, 북측 구간인 온정리~군사분계선간(18.5km)도 아축이 제공하는 자재·장비를 사용하여 공사중에 있다.

## 2) 철도차량 현대화

북한은 기관차·화차·객차 등 철도차량의 현대화사업을 추진, 김중태 전기기관차 공장에서는 작년에 조명시설, 전기난방, 음료수 공급 장치 등 현대화된 객차를 생산하여 각 노선에 투입 운행한데 이어, 금년 5월에는 신형의 기관차를 생산하였다고 보도하였다(5월 26일 중앙방송).<sup>23)</sup> 새로 제작된 전기기관차는 외형이 독특하고 기관차 내부 구조도 종전의 것과 다른데 복도를 가운데 내고 그 양쪽에 전동기와 고압장치들을 비롯한 설비들이 배치되어 있으며 기관사들이 충분히 휴식할 수 있는 침실과 함께 위생실도 따로 설계되어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은 금년 들어 철도운수부문의 혁신적 추진을 중점 과업으로 제시한 이래 철도신설 및 보강사업과 철도차량의 현대화 사업 등에 주력한 결과 다소나마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2) 북한의 철도현황(2002년말 현재) : 총연장 5,235km, 그중 전철화 4,211km (80%)

23) 김중태 전기기관차 공장은 평양시 서성구역에 위치하며 전기·내연기관차, 전동차, 도전차, 객차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북한 최대의 기관차 생산공장으로 종업원은 4,500여명에 달한다(연합뉴스, 5월 27일).

## 6. 과학기술 부문

### 1) 휴대전화·컴퓨터 및 IT산업

북한은 정보화시대에 부응한 경제의 과학화를 위해 금년도에 특히 휴대전화·컴퓨터 및 IT산업 발전과 인재 양성에 주력하였다.

특히 북한은 경제건설을 위해서는 컴퓨터망, 휴대 전화 등 통신 인프라 구축이 필요 불가결하다는 인식에서 통신현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이동통신망을 하루 빨리 건설하며 이동통신 설비의 운영을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이동통신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이금범 체신상은 금년 10월 1일 개최된 전국체신일꾼대회 보고에서 강조하였다.

북한은 태국 록슬리그룹과 공동으로 동북아시아 전화통신회사(NEAT&T)를 설립하여 2001년 8월 나선국제통신센터를 완공하고 동 지역에 전화통신망을 개통하였다. 그리고 2002년 8월 유럽형 이동전화(CSM)방식으로 시험운용에 들어간데 이어 11월부터는 평양과 나선시에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

그리고 북한은 전국 각지에 40여개의 이동통신기지국이 건설되어 운영에 들어갔다고 보도한 바 있으며(9월 15일 노동신문), 중앙방송은 9월 8일 보도를 통해 평양과 각 도청소재지 및 평양-향산-개성-원산-함흥간 도로 등 주요 도로와 그 주변의 여러 시·군에 현대적인 이동통신망을 건설하고 개통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10월에는 평양 고려호텔의 식당에서도 안내원들의 휴대폰 사용이 방북자들에게 목격된 것으로 보도되는(10월 7일 중앙일보) 등 이동통신망 확장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북한의 휴대폰 보급대수는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12월 4일)에 의하면 금년 초 3천여대에 불과하던 것이 11월 하순 현재 2만여대로 증가하여 1년 사이에 6.7배의 급진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휴대전화실태는 설비투자의 초기단계인 소규모 시험통화 수준으로 휴대전화의 고비용, 정보유통의 통제 필요성 등으로 인해 보급대상은 당분간 특수계층을 중심으로 통제·운용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 당·정·군 간부들을 비

뿐만 국경 경비대간부, 국가안전보위부 요원 등은 휴대전화를 보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북한은 정보기술(IT)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를 총괄하는 기구로 노동당 산하에 “21국”을 신설한데 이어 2002년 초 그 직속으로 “정보기술 산업총회사”를 만들어 컴퓨터·통신 등의 산업분야를 지도하고 있으며 작년 11월 컴퓨터통신망을 전국적인 연결망으로 구축,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갔다.

또한 북한은 금년 들어 컴퓨터 전문가와 기술자를 육성하기 위한 인재양성사업을 교육부문의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대량의 IT(정보기술) 및 과학기술 전문가 양성을 위해 수재형 컴퓨터 전문가와 기술자 등 연간 300여명의 IT-과학부문 인재를 양성키로 하고 최고학부인 김일성 종합대학을 비롯한 전국의 대학체제를 대폭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 특히 김일성종합대학에 컴퓨터 과학대학을 신설하는 한편, 전문기술자 양성대학인 김책공대에 정보-기계분야 단과대학도 설립하였으며, 평양기계공업대학과 평성석탄공업대학을 평성공업대학으로 통합해 과학기술자 양성을 담당토록 하였다.

한편 금년 9월 30일에는 컴퓨터 프로그램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 컴퓨터 프로그램 경연 및 전시회”를 개최하고 출품된 500여건의 프로그램을 전시하였는데, 동 행사는 1990년 12월이래 매년 개최되는 북한 최대의 IT분야 전시회로서 그동안 내각·기업소 등 각 기관의 전산화 성과자료와 문자·음성인식, 문서교정, 바둑 등 오락분야 프로그램 등을 전시해왔으며, 2001년부터 IT산업 육성정책에 따라 정보산업분야 학술대회가 신설되고 출품 프로그램수가 예년의 3~400여건에서 현재는 5~600여건으로 확대되어 왔다.

또한 10월 29~30일간 평양에서는 내각총리 박봉주, 당비서 한성룡, 과학원장 변영립 등 당·정 고위간부들과 과학기술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 과학자·기술자 대회를 개최하고 제1차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1998~2002년) 기간 중에 달성한 과학연구성과를 평가하는 동시에, 제2차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2003~2007년)의 기본과업 방향으로서 ①경제회생을 위한 인민경제의 현대화·정보화 추진 ②정보·나노·생명공학 등 첨단기술

과 국방과학기술 발전 ③과학기술 인력양성 및 연구단지조성 ④식량난 해소를 위한 품종개량연구 강화 등을 제시하면서<sup>24)</sup> 정보기술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선진기술도입과 해외자본유치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금년 3월 15일 조선신보에 의하면 중국과 합병한 북한의 “아침-판다 컴퓨터 합영회사”는 펜티엄급 “아침-판다 컴퓨터”를 본격 조립, 연간 13만 5천대를 생산하고 있으며 제품가격은 400~796유로(한화 54~107만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재정사정 악화, “바세나르협약”, 낙후된 기술수준 등으로 인해 실용화 할 수 있는 컴퓨터의 자체생산이 어려워 대부분 중국, 동남아 등지로부터 수입하여 사용해 왔는데, 이번 컴퓨터의 본격 생산은 북한이 중국·대만에서 수입한 컴퓨터 부품에 의존한 조립생산 방식으로 ‘바세나르협약’의 관련 조항 등 북한에 대한 첨단 컴퓨터 금수 조항들이 향후 사실상 사문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 주목된다고 할 수가 있겠다.

## 2) 과학기술 도입

북한은 금년도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첨단과학기술의 적극도입을 중점과업으로 제시하고 올해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 기간 중에는 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물공학을 비롯하여 기계, 금속, 열기술공학을 발전시키기 위해 외국선진기술의 적극적인 도입에 주력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은 중국, 러시아, 태국 등과 과학기술대표단 교환 및 과학기술 협조 의정서 조인 등 과학기술부문의 대외협력에 주력해 왔는데, 금년 1월에는 북한 체신상 이금범을 단장으로 한 체신대표단이 태국을 방문 쌍방간의 연계적인 통신사업의 협의는 물론 최근 북한의 관심사항인 이동통신 추진 문제 등을 협의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4월에는 조선과학기술총연맹 부위원장 장낙천을 단장으로 한 과학기술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하여 당면한 경제건설에 필요한 농수산 및 산업기술분야의 과학기술협력과 교류문제를 보다 폭넓게 협의하고 중국의 산업시설 견학 등을 통해 북한의 경제관리개

24) 북한은 2003~2007년간 곡물 800만톤 달성목표를 설정한 바 있으며 2002년 생산량은 413만톤으로 평가되었다.

선조치와 관련된 과학기술 발전문제를 지속 추진해 나가는데 노력하였다.

한편 4월에는 조선컴퓨터센터 부소장 김철호를 단장으로 한 컴퓨터 대표단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과 하바로프스크의 대학들을 시찰하고 번역프로그램 공동개발 등에 관한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쌍방은 매년 컴퓨터 전문가들을 교환, 블라디보스톡과 평양에서 컴퓨터 번역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하게 되었다. 또한 9월에는 평양에서 쌍방 과학기술부문 관계자들이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 협조위원회 과학기술분과위 제4차 회의 의정서<sup>25)</sup>를 조인하였는데 양자간 과학기술교류 협력을 위한 공동연구와 기술협력문제 등 협조문제를 합의하였다.

이상의 동향을 종합해 볼 때 최근 북한 과학기술 대외협력의 특징은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를 지속하면서도 첨단기술분야는 태국 등 서방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기구 활동을 통해 선진기술추세를 파악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따라서 향후에도 북한은 첨단기술을 보유한 선진국들과의 인력·정보교류 및 공동연구 등을 통해 낙후되어 있는 북한의 산업기반 및 과학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국제기구 활동에도 계속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제기구들의 저개발국에 대한 기술협력·지원프로그램의 획득에 주력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 7. 대외경제부문

### 1) 경제교류 및 협력

북한은 외국과의 무역확대와 합영·합작을 위한 투자유치 등 경제교류 및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금년 초부터 각종 해외연수와 경제사절단의 외국과 견활동을 적극 추진하였다.

지난 1월 북한 수력발전전문가 4명이 에너지 연구단체의 초청으로 인도네시아에 파견되어 일주일간 수력운영 및 보수관리 연수를 실시한 것을 비

25)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과학기술협조분과위원회는 북한과 러시아가 1992년 7월 “조·러 경제공동위원회”에서 양국간 경제·무역·과학기술분야에서 상호협력하기로 합의한 후 이를 추진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8개 상설 소위원회중 하나이다.

못하여, 2월부터 일개월간 무역경제연구원 연구원 2명이 국제개발협력청의 초청으로 스웨덴에 파견되어 경제개발분야 연수를 받았다. 5월에는 경제관료 15~17명이 약 2주간 스웨덴에서 시장경제분야의 연수를 받았으며, 8월에는 경제연수단 12명이 베트남에 파견되어 경제개방 및 운용방법에 관한 연수를 받는 등 11월까지 인도네시아, 스웨덴, 베트남 등 3개국에 약 50여명을 파견시켜 경제분야에 관한 연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다<sup>26)</sup> 그리고 이외는 별도로 북한은 러시아의 모스크바와 극동지역의 대학에 40여명의 유학생도 파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체신상 이금범을 비롯한 각종 분야의 30여개 경제대표단 110여명을 러시아, 중국, 미국, 이태리, 독일, 스위스, 오지리, 대만, 벨기에 등 14개국에 파견하여 각종 협정체결 및 무역확대, 투자유치협, 산업기술분야 협력증진 등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성과를 올린 것으로 보인다

즉 체신상 이창범은 지난 1월 태국을 방문, 통신사업 및 이동통신 추진문제를 협의한 바 있으며, 2월에는 임업상 이상무가 러시아 극동지역을 방문, 목재가공공장건설 및 벌목공 추가파견 등을 협의하였다.<sup>27)</sup> 7월에는 금속공업상 전승훈을 단장으로 한 금속공업대표단이 러시아와 중국을 방문하여 금속기계공업부문의 협력을 모색하였다. 8월에는 석탄 총공사대표단이 대만을 방문하여 “포모사그룹”측과 김책항 부두에 대한 1억불 상당의 설비투자를 협의하였으며, 10월에는 경제교류추진위원장 김홍림을 단장으로 한 10여명의 대표단이 이태리에서 개최된 북한 경제개발협력 포럼에 참석하였다.

## 2) 무역 및 투자유치

북한은 무역확대를 위한 수출품개발 및 증산과 품질관리향상 국제상품전람회 개최, 투자상담회 개최 등을 활발하게 실시하였다. 금년 8월 11~14

26) 북한 연수생파견은 1998년부터 증가되고 있는 바 1997년 18명 → 1998년 111명, 1999년 130명 → 2000년 170명 → 2001년 500여명 → 2002년 40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27) 북한은 현재 러시아의 하바로프스크 등 극동지역의 벌목장과 건설공사장, 농장 등에 근로자 13,000여명을 파견, 외화획득을 위한 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2003년 11월 해외근로자 파견현황 자료종합)

일간 평양에서 개최된 제6차 국제상품전람회에 북한, 중국, 독일, 태국, 말레이시아, 대만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100여개 회사가 전자, 경공업제품, 통신설비, 운전·공작기계, 가금설비, 문화용품 등을 출품하였다<sup>28)</sup> 한편 북한은 1월 24~2월 2일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북한 특산품 전시회를 개최하고 인삼제품을 비롯한 각종 건강식품, 수예품, 자개제품, 조선화(한국화) 등을 전시·판매하였는데 현지 교민과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는 등 금년 들어 모스크바, 독일 뉘른베르크 등에서 8회의 상품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 모색하였다.

북한의 상품 전람회의 특징은 무역확대 및 시장개척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시회 개최 및 해외전시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점과 외국업체들의 참여도가 높은 편으로 특히 서방국가 기업들이 다수 참가하고 있는 점 등이다. 따라서 동 전시회는 북한이 공장·기업소의 기술혁신·현대화, 인민생활 향상을 금년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대서방 경제협력 확대를 통해 서방 선진국의 기계설비 등 산업제품 및 기술정보 등의 도입과 대외경제 협력의 계기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 금년도 북한상품전시회 개최 동향

기 간	장 소	전 시 품
1.24~2. 2	캐나다 토론토	건강식품, 수예품, 자개제품
1.27~2. 3	쌍트 페테르부르크 키로프문화궁전	사진·도서·민예품
2.12~2.24	모스크바 뉴 메네즈 전시장	도서
4.14~4.16	독일 뉘른베르크 제9회 국제중고기계·장비박람회	미확인
5.23~6. 1	브라질 꾸리찌바 전시장	수공예
7. 2~7. 5	블라디보스톡 디나모체육관	생활잡화·컴퓨터
7. 7~7.10	블라디보스톡 비즈니스센터	생활잡화·컴퓨터
7.21~7.29	하바로프스크 과학기술정보센터	생활잡화·컴퓨터

28) 평양 국제상품전람회는 지난 1998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으며 지난해 5월에 열린 제5차 전람회는 15개 국가와 지역의 165개 업체가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평양에서 무역투자상담회를 개최하고 수자원 개조사업, 농업용 화학비료 생산분야 등 투자유치를 희망하였으며, 6월에는 페루 수산물회사와 페루 근해에서 북한 선박의 조업허가 취득 및 수산물 합작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북한은 9월 국경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중국은행과 상호무역결제를 위한 업무제휴협정을 체결하였는데, 북한 나선시에 있는 “황금의 삼각주은행”<sup>29)</sup> 중국 길림시의 중국농업은행 길림지점과 국경무역 결제계좌 조인식을 가졌다. 이는 최근 중국 길림성 정부가 국경무역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경무역이 활기를 띠고 있는 추세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무역투자상담회, 수산물합작사업, 무역업무제휴협정 등 동향은 최근 북한의 경제개혁조치와 관련, 북한이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외화획득을 위해 펼치는 사업의 일환인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 무역증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면서 대외무역에서 실리를 확보할 것을 추구하고 있다. 즉 북한의 경제전문 계간지 “경제연구” 2003년 2호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외화를 번다고 하지만 노력값과 휘발유값, 원료·자재값 같은 것을 다 계산하면 외화벌이에서 밀리는 놀음을 하는 단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자본주의와의 무역이 확대 발전하고 있는 조건에서 실리를 보장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것은 자본주의와의 경제적 대결에서 이기는가 지는가 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만약 귀중한 나라의 재부를 큰 이득 없이 마구 처리하여 남의 배나 불려준다면 그것은 나라와 인민에게 큰 죄악으로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 대외무역에서 실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출입상품을 제대로 선정해야 하며 해외시장이 요구하는 수출품을 개발하는 동시에, 현대화와 주민생활에 꼭 필요한 설비와 원자재를 수입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대외무역에서 실리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북한의 대외무역규모는 1999년부터 다소 증가추세에 있으며 금년에는

29) “황금의 삼각주 은행”을 경제무역지대인 나진·선봉지역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1995년 나선시에 설립된 유일한 상업은행으로서 동 지역 내에 예금거래소 11개, 환전소 6개소를 두고 환전업무와 신용장 발행 등의 무역업무와 일반 금융업무를 취급하고 있다.(연합 2003년 10월 3일)

2002년도 수준인 22억 6,000만불과 비슷한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 근거로서는 북한의 무역대상국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의 무역은 금년 9월말까지 수출입합계 6억 3,000만불로서 전년동기(5억 3,000만불)대비 19.8% 증가하였으나 제2위 무역상대국인 일본과의 무역은 2억불로서 전년동기(2억 7,000만불)대비 28.3% 감소하여 지난 10년간 교역액 중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 1~9월중 북한 무역실적

(단위 : 억불)

구 분	2003년도			2002년도			증가율(%)		
	총액	수출	수입	총액	수출	수입	총액	수출	수입
중 국	6.3	1.9	4.4	5.3	1.8	3.5	19.8	6.6	26.6
일 본	2.0	1.3	0.7	2.7	1.8	0.9	-28.3	-29.2	-26.6
합 계	8.3	3.2	5.0	8.0	3.6	4.4	3.4	-11.3	15.4

\* 자료 : 통일부 주간동향 2003년 11월 13일

또한 태국과의 무역도 금년 상반기 실적이 1억 1,220만불로서 전년동기(1억 1,960만불) 대비 6.2% 감소하는 등 북핵문제, '사스', 대일납치자문제 등으로 인해 대외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다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였으나 북한의 활발한 무역강화정책 추진으로 어느 정도 평년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남북한간의 교역은 금년 1~10월간 5억 8,715만불로 작년 동기간의 4억 4,101만불에 비해 1억 4,614만불이 더 많아 33.1% 증가하였는데, 이는 남북관계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업적 거래·위탁가공무역 등 거래성 교역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비거래성 교역중 인도적 물자지원과 식량차관 제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인한 것이며 이러한 남북교역의 지속적인 증가추세는 금년 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1989년 남북교역 개시 이래 가장 많은 약 7억불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IV. 결 론

북한은 금년 일년중 지난해 취한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정착에 노력하면서 주민생활안정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실리를 위주로 한 공장·기업소의 생산성 향상 노력이 나타나고 극히 제한적이거나 자본주의 마인드가 다소 확산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경제정책면에서는 올해부터 에너지수급 3개년 계획(2003~2005년), 800만톤 식량증산 5개년 계획(2003~2007년), 2차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2003~2007년) 등 에너지와 식량,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이를 토대로 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한 점이 주목된다. 특히 북한은 금년에도 만성적인 식량 및 에너지난 해소를 위해 농업생산 기반강화와 탄광개발·발전소 건설 및 노후시설 개·보수 등에 주력하는 한편 국제사회로부터 각종 경제원조 획득은 물론 투자유치를 위해 총력을 경주함으로써 예년 수준의 경제적 실적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원자재 부족, 시설 노후화, 기반시설 낙후, 경직된 체제 및 핵문제 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경제난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북한은 현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하는 범위 내 생존차원에서 만성적인 경제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불가피하게 점진적이고 제한적인 경제개혁·개방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형태는 개인적인 실리를 목표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와는 다르게 집단의 이익(실리)을 원칙으로 생산활동을 추구하는 이른바 북한식 「실리 사회주의」를 추구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